

한·미·일 3국 정상회담: 의미, 성과, 과제

2023년 8월 23일

보고서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,
국민의힘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

한·미·일 3국 정상회담: 의미, 성과, 과제*

2023. 8. 23.(수), 이윤식 외교안보센터 실장

<요약>

- 尹대통령, '사상 첫 한미일 3국 단독회담'이란 외교사에 길이 남을 訪美 성과를 가지고 귀환
 - 이번 정상회담은 △최초의 한미일 3국만의 정상회담, △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및 역내 역할 증대, △자유주의 연대의 정점을 찍은 '초대형 이벤트' 등 여러 함의가 있음
- 3개 문건 채택: △캠프데이비드 정신, △캠프 데이비드 원칙, △3국 협의에 대한 공약 등
 - '캠프데이비드 정신'은 3국 협력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, '캠프 데이비드 원칙'은 협력의 구체적 지침을 포함, 한미일 협의에 대한 공약은 세부 이행과제를 담음
 - 핵심 성과는 ①언제든지(whenever), 어디서든지(wherever), 뭐든지(whatever) 협력 가능한 3국간 핫라인 구축, ②회담 정례화를 통한 3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도 동시에 마련
- 同 협력이 '일회성 이벤트'가 아닌 '내실있는 협력체'로 안착되기 위해선 조속한 후속조치가 필수
 - △합의사항 내실화를 위한 지속가능성 확보, △北·中의 '한국 흔들기'에 대한 효율적 대비책 강구, △한미동맹의 미일동맹 수준으로 업그레이드, △對국민 지지 확보를 위한 공론화 작업 등

1. 의미 및 평가

① 사상 최초, 한미일 3국만의 단독 정상회담

- 지난 주말尹대통령이 '사상 최초, 한미일 3국 단독 정상회담'이란 외교사에 길이 남을 1박 4일간의 訪美 일정을 마치고 무사히 귀환
- 다자회담 계기 한미일 정상회담이 성사된 적은 이제껏 13차례 있었으나, 한미일 3국만의 단독 정상회담은 처음이라 그 의미가 눈부심

②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및 역내 역할 증대

- 지난 10여년간 한국 대외전략의 기초였던 '중견국 역할론'과 '균형외교'의 틀을 단숨에 뛰어넘어 과감히 국제정치 질서 형성에 적극 동참
- 이번을 계기로 한국이 미·일과 함께 역내 핵심 Agenda setter이자 Rule maker로 거듭남으로써, 동북아 세력 형성의 구조적 행위자로 등극
- 대한민국의 이러한 도약은 국제정치사에 유례가 없으며, 추후尹정부의 '글로벌 중추

* 同 보고서는 여의도연구원 외교안보센터(2023.8.22.화)가 주최한 <한미일 3국 정상회담: 의미, 성과, 과제>란 제하의 공개 세미나 발제문과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.

국가 건설' 추진의 주요 동력이자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

③ '자유주의 연대'의 정점을 찍은 초대형 이벤트

- 이번 캠프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은 尹정부가 추구해온 '자유주의 가치연대 및 규범 확산'에 정점을 찍는 '초대형 외교이벤트'로 봐도 무방
 - ※ 참고: △3월 한일 정상회담, △4월 한미 정상회담, △5월 한일 셔틀외교 및 G7 정상회담, △7월 나토 정상회의, △8월 한미일 3국만의 단독 정상회담으로 일단락
- 그간 한·미·일 3국 협력은 미국의 동아태 전략에서 오랜 숙원이었으나, 한일 과거사 문제 및 동북아 정세 대응 기조 차이로 늘 제한적 형태로만 진행
- 그러나 이번 캠프데이비드 만남을 통해 한미일 3국 협력은 새로운 전기 맞았으며, 동시에 尹정부가 추구해온 '자유주의 가치외교'도 빛을 발함

2. 합의문 분석 및 성과

□ 3개 문건 분석

※ "캠프 데이비드 정신(Spirit of Camp David)", "캠프 데이비드 원칙(Camp David Principles)", "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(Commitment to Consult)" 등 3개 문건 합의

○ 캠프데이비드 정신(The Spirit of Camp David): 3국 협력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

- 모든 영역과 인도-태평양 지역 및 글로벌에 걸쳐 3국 협력을 확대하고, 공동의 목표를 새로운 지평으로 높이기로 약속
- 경제를 강화하고, 회복력과 번영을 제공하며, 법치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지지하고, 특히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지역 및 글로벌 평화와 안보를 강화
-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3국간 공조를 강화, 또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, 3국 안보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
-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, 도발, 그리고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해 서로 신속하게 협의한다는 3국 정부의 공약을 발표

○ 캠프데이비드 원칙(Camp David Principles): 한미일 협력의 구체적인 지침

- 3국간 파트너십 및 인도-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확인
- 한미일은 인도-태평양 국가로서 국제법, 공동의 규범, 그리고 공동의 가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, 자유롭고 열린 인도-태평양을 계속해서 증진
- 힘에 의한 또는 강압에 의한 그 어떠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도 강력히 반대하며, 3국 안보협력의 목적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증진하는 것
- 또한, △아세안 중심성 결속 지지, △태평양도서국 협력체와 협력, △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 견지, △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재확인, △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 관행, △접근 가능하며 안전한 기술 접근법, △기후변화 대응, △유엔헌장의 원칙(특히

주권, 영토 보전,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무력 사용에 관한 원칙) 수호, △핵비확산 공약 준수 등

-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(Commitment to Consult): 세부적 이행 지침
 -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, 도발,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,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신속하게 협의할 것을 공약
 - 이러한 협의를 통해, 정보를 공유하고, 메시지를 동조화하며, 대응 조치를 조율하고, 3자간 정기적이고 시의적절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구축
 - 한미일 3국은 자국의 안보 이익 또는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유를 보유 등

□ 핵심 성과

① ‘언제든지’, ‘어디서든지’, ‘무엇이든지’ 3국간 협력 가능한 ‘하라인 구축’

-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기자 회견에서 “역내에 위기가 발생하거나 우리 중 어느 한 나라라도 영향을 받을 때마다(whenever) 이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협의하기로 공약하고 ‘하라인’을 만들 것”이라고 발표
- 또한, 지역도 분야도 전방위적으로 확대(whenever)하고, 세 나라의 이익이 걸린 글로벌 현안은 어떤 것이라도 협의 대상(whatever)이 될 수 있음을 명시
 - 즉, 지역적으론 한반도 및 동북아를 넘어 인도-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영역까지 포괄하는 범지역적 협력체의 신설로,
 - 그리고 내용적으론 군사안보를 넘어 외교안보·경제금융·첨단산업·신기술·우주분야 및 의료와 서비스까지도 총망라한 포괄적인 전방위 협력 네트워크의 출범
- 아울러 군사안보는 문서에 표현된 ‘지역적 도전, 도발, 그리고 위협(regional challenges, provocations, and threats)’ 등 분야를 한정하지 않은 다양성(whatever)을 의미
 - △전례 없이 고도화되는 북핵·미사일 위협에 맞서 3국 안보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고, △對北 공조를 공고화, △정보공유 및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조율 강화
 - ※ 한미일 3국 정상들이 함께 ‘남북자·국군포로’ 및 ‘자유평화통일’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, 공식 언급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

② 회담 정례화를 통한 3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

- 역사상 최초로 △한미일 정상회의, △외교장관, 국방장관, 상무·산업장관(신설), 국가안보실장 간 회의 年 1회 정례화(재무장관 회의 출범도 조율 중)
- 동시에 고위 그룹에서의 차관보·국장급 ‘인도태평양 대화’ 출범 및 정례회의 개최

3. 향후 과제

① 합의사항 내실화를 위한 지속가능성(sustainability) 확보가 핵심

- 현재 협력을 방해하는 도전요인(△각국 국내정치 상황, △中의 강압적 행태, △한일관계 등)들이 산적한 바, 합의 사항의 조기 실천을 위한 정책 추진이 긴급
- 특히, '일회성 이벤트'가 아닌 '내실있는 협력체'로의 정착을 위해선 3국간 신뢰나 후속 조치의 속도 및 밀도도 중요하지만, 핵심 변수는 결국 한일관계로 보임
- 이번 회담 성공의 요체는 3국 협력의 '약한 고리'였던 한일관계 복원이었던 바, 3국 협력의 지속가능성도 한일관계가 핵심. 이에 지속적 관리가 필요
- ※ 한일 간 고질적 쟁점인 △독도 영유권 주장(19번째), △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, △美 인태사령부의 일본해("Sea of Japan") 표기 등이 변수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

② 北의 군사도발과 中의 '한국 흔들기'에 대한 효율적 대응책 강구

- 3국 협력에 반발한 북한의 핵위협이 예상.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<워싱턴선언>에서 합의한 NCG의 실효적 가동을 통한 효율적 대응태세 구축이 필요
- 中도 우려와 불만을 표시하며 한미일 협력체제의 균열 시도에 나설 것. 특히, 한국을 겨냥한 회유·압박이 거세질 걸로 예상되는 바, 선제적 대응이 요망
- 예를 들면, 한중 대화 채널을 통해 "3국 협력이 중국과 대결하려는 게 아니다"란 메시지 발신과 함께, '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'(서울 소재)을 활성화해 한미일 협력에 비례한 한중일 협력도 병행·발전시키는 전략적 균형 유지가 중요

③ 한미동맹을 미일동맹 수준으로 업그레이드

- 한미일 3각 협력의 지속가능한 유지·발전 및 높은 수준에서의 공고화를 위해선 한미동맹이 미일동맹에 준하는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함
- 특히, 1953년 체결 이후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는 <한미상호방위조약>을 현실에 맞게 재개정해, 유사시 미군 개입의 확실한 담보를 확보하고,
- 또한, <한미 원자력협정>을 <미일 원자력협정> 수준까지 재조정해야 함. 우리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한 <미일 협정>처럼 조정이 필요

④ 대국민 지지 확보를 위한 공론화 작업 필요

- 이번 합의에서 3국 협력의 원칙과 방향을 합의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갖췄지만, '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가'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존재
- 이에 온-오프라인을 통해 한미일 정상회담이 국익과 국민에 어떤 의미가 있고, 또 어떤 도움이 되는지 '국민 체감형' 소통과 홍보 강화에 힘써야 함
(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홍보자료 마련, 온-오프라인 강연회 실시 등)